

현안과 과제

■ 2015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세계경제 대변혁기 대응이 필요하다

1. 다보스 포럼의 개요

- (개요) 다보스 포럼은 1971년 이후 세계경제의 현안 등을 논의해 왔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세계경제 재건과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에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
- 금융위기 이후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 재건 및 새로운 세계경제 모델 등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보스 포럼의 주제와 참여 인사 >

구분	주제 및 논의 내용	주요 참여 인사
2009 (39회)	- 위기 이후의 세계 (Shaping the Post-Crisis World) · 글로벌 경제 New Normal 시대 · 국제적 협력 · 효율적인 거버넌스 · 기업가 정신과 혁신 · 금융보호주의 · 세계경제 새 질서 · 아시아의 부상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2010 (40회)	- 더 나은 세계 (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 금융개혁 압력 · 신중한 세계경제 낙관론 · 글로벌 리더십 변화 · 기후변화 · 뉴노멀 (New Normal)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리커창 중국 부총리 등
2011 (41회)	- 새로운 현실 (New Reality) · 무역불균형 · 신흥국과 선진국 경기 회복 격차 심화 · 노령화 · 자원부족 · 기술혁신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2012 (42회)	- 대전환 (Great Transformation) · 성장과 고용 · 리더십과 혁신 · 지속 가능성과 지원 · 사회·기술적 모델	비ক্র람 팬티드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 세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 책임자 피터 보서 셀라 대표 등
2013 (43회)	- 유연한 역동성 (Resilient Dynamism) · 글로벌 시스템 재정비 · 유연성과 민첩성 · 역동적인 지도자	대니얼 카너먼 프린스턴 명예교수(2002년 노벨경제학상) 클레이튼 크리스토퍼슨 하버드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마틴 소렐 WPP그룹 회장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2001년 노벨 경제학상) 등
2014 (44회)	- 세계의 재편 (Reshaping of the World) · 포용적 성장의 성취 · 파괴적 혁신의 포용 · 사회 내 새로운 기대들과의 조우 · 90억 명의 지속가능한 세계	리코 단코테 단코테 그룹 회장(나이지리아) 크리스 코팔라크리쉬난 인포시스 부의장 장셴칭 중국 공상은행 은행장 주디스 로딘 록펠러 재단 회장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외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 (2015년 제 45회 다보스 포럼) '새로운 세계 상황 (The New Global Context)'이라는 주제하에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난제'에 대한 대처 방안이 논의될 전망

- 제 45회 다보스 포럼이 오는 1월 21일 ~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
-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등 국제단체 대표, 각국의 정상, 비즈니스 지도자 등 2,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
- 올해로 7회째 맞는 '한국의 밤(Korean Night)' 행사도 22일에 열릴 예정
- 금번 다보스 포럼은 새로운 시대 도래에 따르는 협력 방안, 소득 불균형 심화 등 전반적인 경제·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논의와 대처 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 WEF는 2015년 글로벌 아젠다 1~3위로 소득 불균형, 고용 없는 성장, 리더십 부족을 선정
- 올해 글로벌 10대 아젠다에 '지정학적 갈등', '국가주의 강화' 등이 포함됐을 정도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 45회 다보스 포럼의 의제 및 참여인사 >

구분	의제와 참여 인사
주요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세계 상황 (The New Global Context) · 분권화된 세계화, 지역간 갈등 · 글로벌 저성장 · 비정상적 통화 정책의 정상화 · 에너지 헤게모니 · 이상기후, 청년실업, 소득 불평등
주요 참여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용 세계은행 총재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 하리 바티아 주빌랜드 바티아 회장 - 캐서린 가렛 얼라인언스 트러스트 대표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 2015년 글로벌 아젠다 TOP 10 >

순위	글로벌 아젠다
1	깊어지는 소득 불균형
2	고용없는 성장 지속
3	리더십 부족
4	지정학적 갈등 고조
5	정부의 불신
6	개도국의 환경 오염
7	이상 기후 현상
8	국가주의 강화
9	물 부족
10	세계 의료 및 보건(에볼라 포함)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Outlook in the Global Agenda 2015.

2. 다보스가 본 2015년 세계경제

1) 글로벌 경쟁구도 재편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면서 뉴노멀 (New Normal)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재정여력 약화 등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됨

- 선진국, 신흥국 등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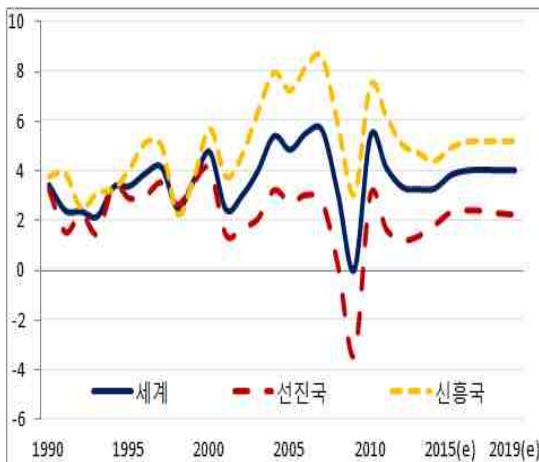
- IMF(2014)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성장 한계에 봉착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시작되는 뉴 노멀시대를 거쳐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성장세가 하향 안정화되는 글로벌 모더레이션(Global Moderation) 양상이 나타남
- 향후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는 각각 1~2%대, 3~4%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

- 미국, 일본, 유로존 등 디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여력도 지속 약화

- 미국, 일본, 유로존 등 GDP 갭(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이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갭이 지속
- 또한, IMF(2014)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미국, 일본, 유로존 등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각각 106%, 245%, 96%로 2000년보다 약 2배 증가

<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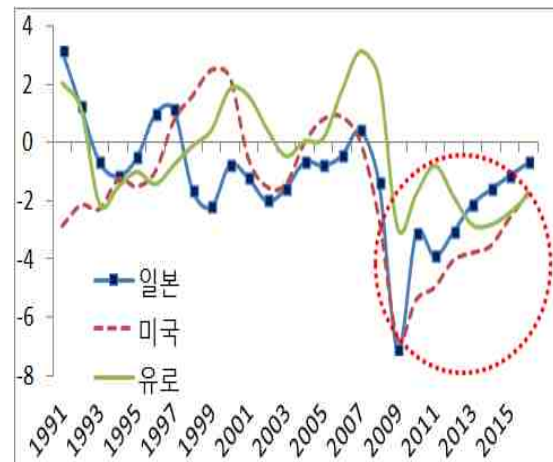
(%)



자료 : IMF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2014년부터 IMF 전망치.

< 미국, 일본, 유로존 GDP 갭 >

(%)



자료 : IMF.
주 : GDP 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의미.

- 각 국가들이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뿐 아니라 제조업혁신 경쟁력 강화 등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경제는 향후 치열한 경쟁구도로 진입할 전망
 -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 국가들은 금리인하 등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가속
 - 미국은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타계를 위해 진행해온 양적완화를 2014년 10월말 종료하면서 향후 금리인상 등이 예상됨
 - 하지만, 일본과 중국 등 국가들은 각각 아베노믹스(2012년), 기준금리 인하('14.11) 등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조치를 단행
 - 한편, 유로존도 2013년부터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진행
 - 특히, 이들 국가들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혁신 경쟁력 강화를 강구하면서 향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속 치열한 경쟁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첨단제조업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일본의 산업부흥전략, 중국의 7대 신흥산업전략 등 주요국들의 제조업 혁신 경쟁이 가속
 - 한편, 유로존은 'Horizon 2020' , 독일의 신하이테크 전략(2014~2017년) 등을 앞세워 미래 제조업 혁신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등 향후 각 국가간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됨

< 최근 주요국의 경제 구조개혁 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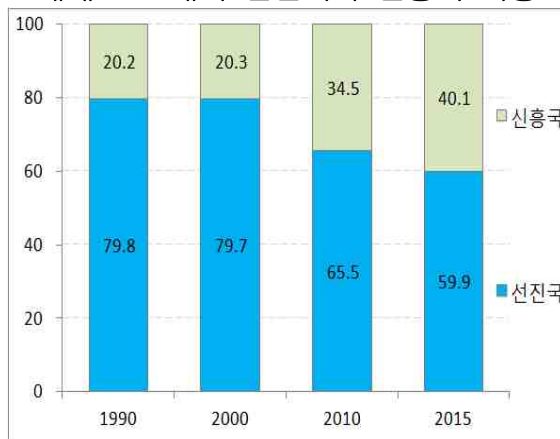
구분	경기부양 정책	산업혁신 전략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09년) · 양적완화 시작('08년), 종료('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 정책('09년) · 첨단제조파트너십(AMP, '11.6) · 첨단제조업을 위한 국가전략수립('12.2)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노믹스('12년) · 법인세 인하('15~16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산업부흥전략('13.6) · 산업경쟁력강화법('14.1)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경기 부양('13년부터) · 금리인하 ('12.7, '1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전략적 7대 신흥산업전략('12.7) · 과잉생산 및 투자 업종 규제('13.10)
유로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13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rizon 2020 제시('13년) · 독일의 Industry 4.0('13년) · 독일의 신하이테크 전략('14.9)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에 대한 규제완화('1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 제시('13.11) · 제조업 3.0('14.6)

자료 : 각 국가별 정부발표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2) 분권화된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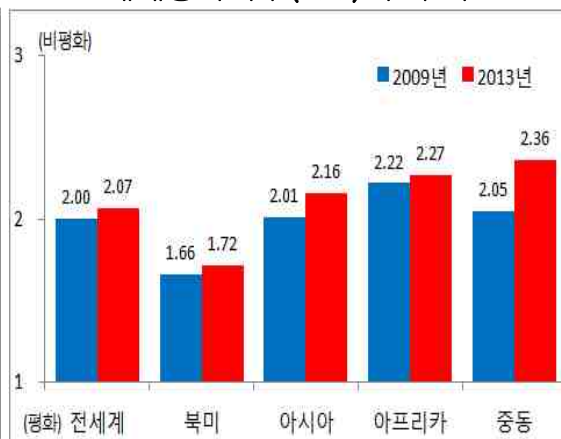
- **신흥국의 경제성장, 강력한 리더십 부재 등으로 국제사회가 다원화 됨에 따라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 부재로 국제 질서의 불안이 심화**
 - 신흥국들의 높은 경제 및 무역 성장세로 신흥국이 부상하며, 글로벌 경제 파워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
 - 세계 GDP 대비 신흥국의 비중이 1990년에 20.2%에서 2015년 40.1%로 2배 증가
 - 한편 선진국의 비중은 동기간 79.8%에서 59.9%로 감소
 -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부재로 역내 패권 경쟁을 둘러싼 지역 분쟁이 확산
 - 국제사회의 다원화로 각국의 주권의식과 국력이 성장하여 충돌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한계
 - 분쟁지역의 확산으로 세계평화지수¹⁾가 2009년 2.00에서 2014년 2.07로 악화
 - 아시아는 영토 및 자원 분쟁으로, 아프리카와 중동은 종교 및 자원 분쟁으로 인해 평화지수가 악화

< 세계 GDP 대비 선진국과 신흥국 비중 >



자료 : IMF.

< 세계평화지수(GPI)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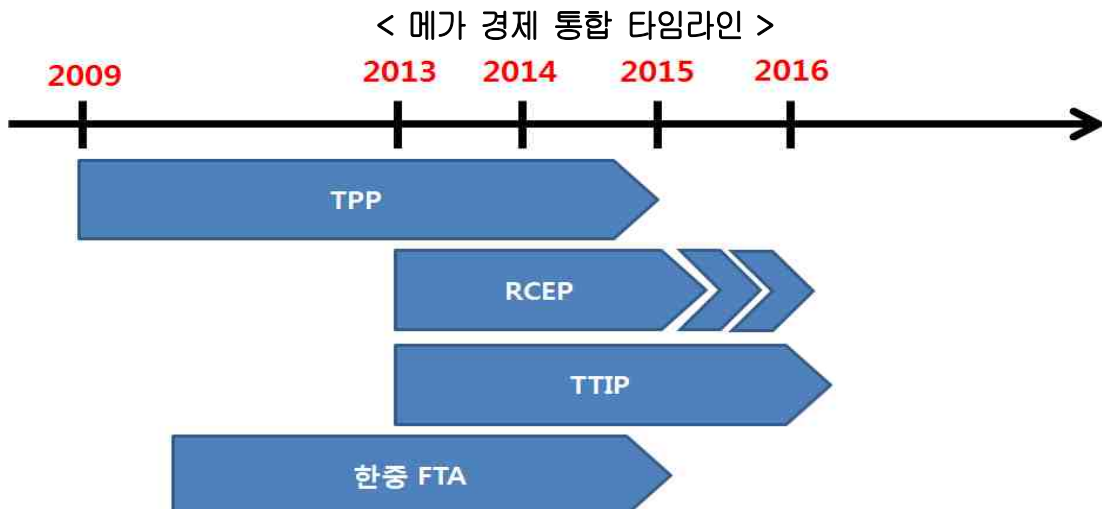


자료 :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IEP).
주 : 1(평화)~4(비평화)를 의미.

1) 22개의 개별 지표를 고려해서 162개 국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및 국제 분쟁, 사회의 안전 및 보안 그리고 군사화 등을 측정.

○ 세계는 위기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영토 확장, 新환율전쟁 양산 확대 등으로 지역간, 국가간의 갈등이 심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²⁾, 역내포용적경제동반자협정(RCEP)³⁾ 등 메가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가간 경제영토 확장 전략이 가시화
 - 201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RCEP, 미국 중심의 TPP 등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
 - 또한, 세계 1, 2위 경제권인 미국과 EU가 진행하고 있는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도 2015년 내에 빠른 협상 진전이 전망됨



자료 : Peter A, Petri (2014), The New Mega-Regionals : the TPP, RCEP and beyond.

- 과거 환율전쟁은 글로벌 불균형에서 비롯된 반면 최근에는 위기극복 과정 및 경제회복 과정에서 新환율전쟁 양상이 확산
 -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양적완화 정책 시행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며 환율 갈등의 단초를 제공
 - 과거의 환율 전쟁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 양상이 보임
 -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가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는 등 최근 자국 통화 가치 상승 억제에 초점을 둠

2)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등 12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세계 GDP 중 약 40%에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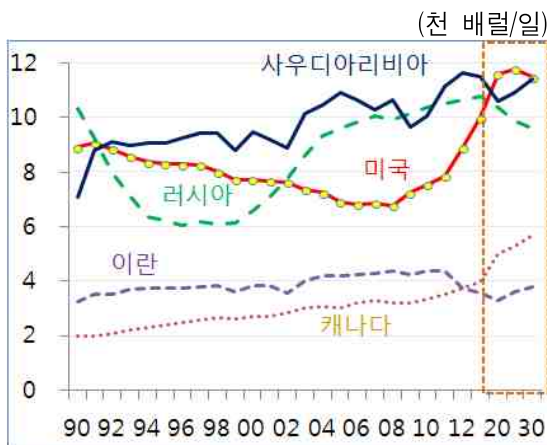
3)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세계 GDP 중 약 30%에 이르는 규모를 가짐.

3) 글로벌 에너지 헤게모니(Hegemony)⁴⁾ 변화

○ '비전통 에너지⁵⁾ 혁명'으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OPEC(석유수출기구)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러시아에서 미주지역 등으로 분산되면서 에너지 헤게모니가 변화될 것임

- '셰일 붐(Shale Boom)'으로 미국은 가스 및 오일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
 - 미국은 2016년이 되면 현재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
 - 이미 미국은 2010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등극

< 주요국 오일 생산 전망 >



< 주요국 천연가스 생산 전망 >



자료 : BP,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북미 지역 주도의 비전통 에너지 생산 확대는 향후 에너지 시장과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⁶⁾

-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 셰일오일 등 비전통 오일 공급으로 국제유가는 2035년 EIA(美에너지정보청) 유가 전망치 \$133/배럴보다 약 \$33~\$50 정도 낮아질 전망
- (국가별 편익 차별화) 유가 하락으로 일본과 인도 등 원유 수입대국의 경상수지는 GDP대비 1%~3% 늘어날 것으로 추정, 반면 전통오일 수출 대국인 중동과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GDP대비 4%~11% 줄어듦 전망

4) 에너지 헤게모니는 풍부한 전통 오일과 가스 매장량을 가진 중동지역과 러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지배한 것을 의미.

5) 비전통 에너지는 전통 에너지인 기존의 석유와 가스의 생산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의미, 크게 비전통 오일과 비전통 가스로 구분, 비전통 오일은 초중질유(오일샌드), 케로진 오일(셰일가스), 라이트 타이트 오일 등, 비전통 가스는 셰일가스, 탄층메탄가스, 타이트 가스 등을 포함.

6) PWC, Shale Oil : the next energy revolution Feb, 2013.

4) 이상기후 리스크

○ 온실가스 배출 증가 및 지구 온난화 가속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증가 등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국가간 인식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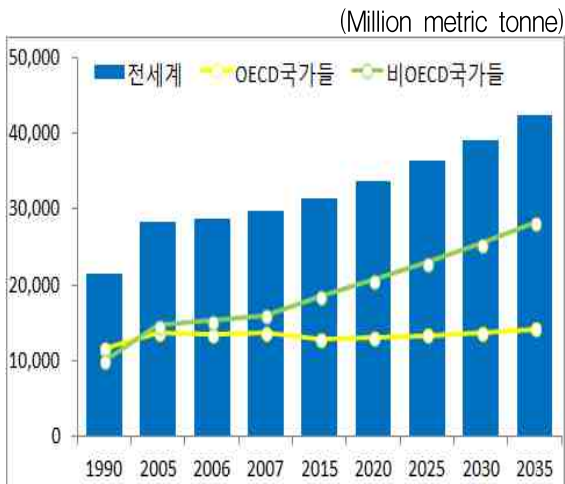
- 온실가스 배출 증가

- 신흥국의 급속한 산업화, 화석에너지 사용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21.5GT(Giga-tonnes)에서 2015년 31.5GT, 2035년 42.4GT로 증가 예상

- 자연재해 발생으로 경제적·인명 피해 발생 지속

- 2014년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 건수는 980건으로 2013년 920건 보다 6.5% 증가
- 2014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1,100억 달러, 사망자수는 7,700명을 기록

< 에너지관련 온실가스배출 전망 >



자료 : EIA.

< 2014년 주요 자연 재해 >

지역	사건	피해규모
인도	태풍	손실 규모 : 70억 달러 사망자 수 : 84명
일본	혹한	손실 규모 : 59억 달러 사망자 수 : 37명
인도 및 파키스탄	홍수	손실 규모 : 51억 달러 사망자 수 : 665명
중국	지진	손실 규모 : 50억 달러 사망자 수 : 617명
브라질	기름	손실 규모 : 50억 달러

자료 : Munich Re Natcat SERVICE.

5) 사회적 불균형 심화

○ 부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기회 감소 등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균형 양상이 심화

- 전세계 인구의 1%미만이 전세계 총자산의 41%를 차지하는 등 소득불균형 양상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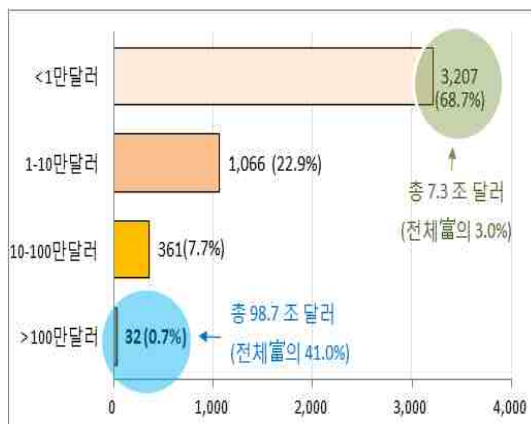
· Global Wealth Report(2013)에 따르면, 성인 기준 개인 총자산이 1만 달러 미만인 인구는 약 32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69%를 차지하며, 전세계 부(Wealth)의 3%에 불과

· 반면, 동기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0.7%인 약 3,000만 명으로 전세계 부(Wealth)의 41%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소득 불균형 양상을 보임

- 한편, IT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기회 감소 등 일자리 부족 문제도 더욱 심화

· 전세계 대륙별로 고용기회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라틴아메리카 79%, 유럽 70%, 아시아 62%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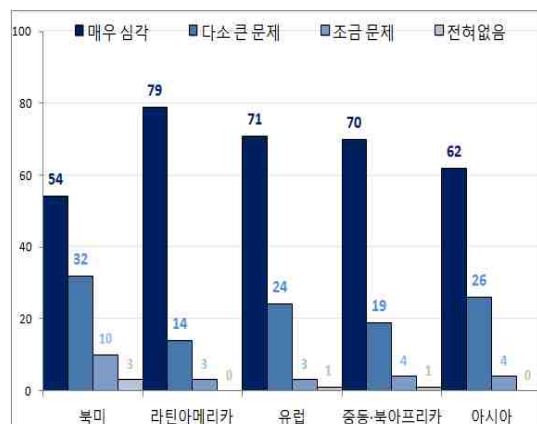
< 세계 개인 자산총액별 인구 현황 >
(백만명)



자료 : Global Wealth Report 2013 자료로 현 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는 2013년 세계 전체 인구 중 비중.

< 대륙별 고용기회 부족 인식 조사 >
(%)



자료 :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s Project 2014.

주 : 설문조사 결과 기준.

3. 다보스 포럼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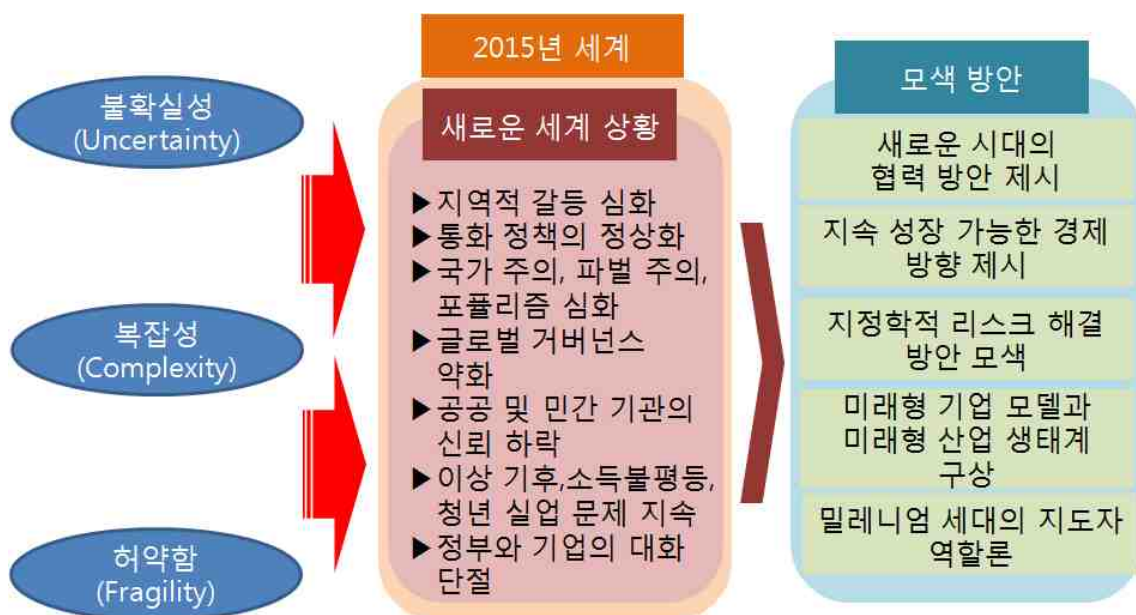
○ 핵심 의제 : 새로운 세계 상황 (The New Global Context)

- (의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등의 변화로 직면한 새로운 난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 불확실성, 복잡성, 취약함 등으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난제들로 직면

- 전통적인 강대국의 리더십이 사라진 '분권화된 세계화(Decentralized Globalism)'에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 지역 갈등 고조는 세계경제 회복에 리스크로 존재하지만, 이를 협력으로 이끌 리더십이 부족한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 성장동력이 사라진 세계경제, 미국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 따른 세계경제 영향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 질 전망
 - 저성장 시대를 맞는 세계경제에 지속성장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

< 2015년 다보스 포럼의 대안 >



○ 분야별 아젠다 (Agenda)

- 새로운 세계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다보스 포럼은 5대 분야의 아젠다와 아젠다별 논제를 제시하고 대처방안을 모색
 - 아젠다는 글로벌, 경제, 지역, 산업 및 비즈니스, 미래 등 5가지 분야로 구분
 - 금번 포럼의 토론 방향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성장가능한 경제, 혁신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 특히 글로벌 저성장, 글로벌 리더십, 지역간의 갈등, 산업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경제 분야에서는 저성장에 직면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과 다자간의 협력이 줄어들고 새로운 경쟁체제로 변화하는 지역간의 갈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 새로운 미래형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할 전망

< 5대 분야별 아젠다와 주요 토론 주제 >

5대 분야	아젠다(Agenda)별 논제	주요 토론 주제
글로벌 아젠다 (The Global Agenda)	-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경제 아젠다 (The Economic Agenda)	-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Sustainable & Inclusive Economic Growth)	- 글로벌 저성장과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적 아젠다 (The Regional Agenda)	- 사회적 & 정치적 변화 (Soci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s)	- 국가적 & 지역적 도전 과제 - 무역과 투자를 통한 기회
산업 아젠다 (The Industry and Business Agenda)	- 미래형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	- 혁신적 사고, 신뢰 구축, 전달오차 (Delivery gap) 발견 - 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다양성 모색
미래 아젠다 (The Future Agenda)	- 변화를 통한 세계 재편성 - 새로운 미래 구상	- 예술, 과학, 기술, 의학 등의 분야의 새로운 변화 -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 Generation)의 리더인 뉴 챔피언 (New Champion)의 역할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4 Executive Summary.

4. 시사점

- 2015년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짐
 - 이번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경제, 지역, 산업, 미래 등 5대 아젠다가 제시될 예정
 -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글로벌 저성장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변화 등 저성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활력 모색이 핵심을 이룰 전망
 - 또, 최근 몇 년간 지속 거론되고 있는 이상기후 및 환경오염, 물부족 등 중장기적 해결과제 뿐 아니라, 청년실업, 소득불균형 등 양극화 문제도 논의될 예정

- 글로벌 저성장 진입으로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경제도 제조업 혁신 경쟁력 강화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
 - 첫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R&D 확대 등 제조업 혁신 창출 인프라 마련과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산업간 교류 시스템 구축해 보다 용이한 신성장 동력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둘째, 일본, 중국 등 저성장을 기회로 극복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경제 구조개혁을 모델화해 효율적인 경제구조로의 재편을 모색해야 함

 - 셋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의 혁신화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겨냥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강구

 - 넷째, 기존 중동 및 러시아에 집중되었던 에너지 패권이 미주지역으로 빠르게 분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가 등 원자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

 - 마지막으로, TPP 등 지역 경제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한 '신통상 로드맵'을 구축을 통해 새로운 통상 전략 마련이 필요

정 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의